

지난해 취업자 가장 많은 직종, 광주는 식당 전남은 농업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교육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순 많아 전국 건설경기 한파에 건설·청소·실내건축업 취업자 연쇄 타격

지난해 광주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음식점 및 주점업', 전남은 '농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산업 중분류별로 광주에서는 '음식점 및 주점업'의 취업자가 전체의 8.5%인 6만 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와 같이 음식점 취업자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체는 서울과 부산 등 3곳이었다. 광주는 음식점 및 주점업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 5만 9000명(7.7%), '사회복지 서비스업' 5만 8000명(7.5%) 순으로 많았다.

전남은 농업 취업자가 전체의 19.5%에 달하는 19만 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 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만 6000명(8.9%), '사회복지 서비스업' 7만 2000명(7.1%) 순이었다. 광역자치체별로 가장 취업자가 많은 산업은 대구와 대전은 '교육서비스업', 인천과 경기는 '소매업·자동차제외' 울산은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세종은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강원은 '사회복지서비스업'이었다.

충북과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는 전남과 마찬가지로 '농업'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 직업 중분류별 취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광주는 '경영 및 회계관련 사무직'이 10만 8000명으로 취업자가 가장 많았고,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5만 6000명,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이 5만 5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은 '농·축산 숙련직'이 19만 4000명으로 전체의 19.1%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고, 뒤이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0만 5000명),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7만 3000명)이었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 14개 광역자치체에서 가장

많은 취업자가 나오는 직업은 '경영 및 회계관련 사무직'이었고, '농·축산 숙련직'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과 전북, 경북 3곳이었다. 한편, 전국을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건설경기 한파로 건물건설업뿐 아니라 청소·방제서비스업, 실내건축업 등 관련 업종의 취업자가 줄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물건설업 취업자가 59만 5000명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2만 8000명 줄었다. 연쇄적으로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부동산 서비스업, 실내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도 모두 1만 7000명씩 감소했다. 철물이나 벽지, 공구, 조형 등을 파는 기타 생활

용품 소매업 취업자도 전년 동기보다 1만 6000명 줄었다. 취업자 감소 폭이 큰 10개 업종 가운데 5개 업종이 건설업 부진 영향을 받았다. 임금근로자 2208만 2000명의 임금 수준별 구성비는 200만~300만원 미만인 33.2%로 가장 많았다. 400만원 이상(24.6%), 300만~400만원 미만(21.5%), 100만~200만원 미만(11.5%), 100만원 미만(9.2%)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400만원 이상은 2.5%p, 300만~400만원 미만과 100만원 미만은 각각 0.7%p, 0.1%p 상승했다. 100만~2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은 2.7%p, 0.6%p씩 하락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5월 17일까지 가정의 달 할인 프로모션·사은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 '정관장' 직원이 손님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본점 지하 1층 정관장 매장에서도 오는 5월 17일까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매장에서는 인기상품인 '홍삼정 에브리타임 리미티드', '천녹정' 등을 포함한 품목별로 5~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정관장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4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 포인트 적립 및 브랜드 감사품을 증정한다. 오는 7일까지는 구매금액대별로 5% 상당의 롯데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전남농협 수출협의회 올 수출 목표 달성 다짐 농가 경쟁력 향상 등 논의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23일 전남본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전남농협 수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수출목표달성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총회는 협의회 수출농협 조합장 등 20여명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농협경제지주 식품사업부가 함께 농협과 행정 간의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기우 회장은 "올해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 수출농가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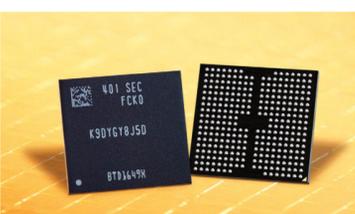


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택 본부장은 "지난해 배 작황 부진 등 어려운 여건에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수출농협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전남농협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품목별 수출전문조직 육성을 통해 농가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 낸드 리더십 강화

더블 스택 구조로 290단 쌓아 메모리 초격차 기술력 재확인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사진> 양산을 시작하며 메모리 초격차 기술력을 재확인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고용량·고성능 낸드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초고난도 기술로 낸드 시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더블 스택' 구조로 구현 가능한 최고 단수 제품인 9세대 V낸드를 양산한다고 23일 밝혔다. 9세대 V낸드는 현재 주력인 236단 8세대 V낸드의 뒤를 잇는 제품으로, 290단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 스택은 낸드플래시를 두 번에 걸친 '채널 홀 에칭'으로 나뉜 뿔은 뒤 한 개의 칩으로 결합하



는 방법을 뜻한다. 삼성전자는 채널 홀 에칭 기술을 통해 한 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뿔는 공정 혁신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쌓은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홀(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로, 적층 단수가 높아져 한 번에 많이 뿔수록 생산 효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교화·고도화가 요구된다. 실제로 낸드의 적층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적층

공정 기술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V낸드의 원가 경쟁력은 최소한의 공정으로 단수를 쌓아 올리는 것이 핵심으로, 스택 수가 적을수록 거쳐야 하는 공정 수도 줄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쟁력이 높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 크기 셀(Cell),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단위 면적당 저장되는 비트의 수)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다. 더미 채널 홀(Dummy Channel Hole)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해 제품 품질과 신뢰성을 높였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토글(Toggle)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상된 최대 3.2Gbps(초당 기가비트)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구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캠코 광주전남본부 채무자 권익보호 캠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 올해 4-10월 캠코 위탁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개인채무자 권익보호 및 상호존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캠코와 신용정보회사가 협력해 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와 공정추심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날 캠페인의 시작으로 참여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차상휘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 캠코 직원과

신용정보회사 실무자들은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서약식을 개최하고, 채무자의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한 교육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캠코는 앞으로 캠페인 참여 기관들은 10월까지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상호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역지사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상휘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채무자의 소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과도한 추심 방지와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수출 호조에 높아지는 경제성장률 전망

UBS·씨티 등 일제히 상향 한은도 "2.1% 상회 가능성"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기대 이상의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깔렸다. 2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UBS는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씨티는 2.0%에서 2.2%로, HSBC는 1.9%에서 2.0%로 각각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 이 중 UBS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향후 수출과 생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더 나아가 미국 경제가 내년까지 경기 침체를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의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수출과 생산 회복에도 한층 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씨티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가 한국의 설비 투자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올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전망치를 3.4%에서 3.8%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 HSBC의 경우 미국의 강한 성장세와 중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은 글로벌 무역 증가가 한국의 수출 모멘텀을 계속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클레이즈는 최근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PC, 스마트폰 등과 같은 소비재 품목 수출도 더 증가할 경우 하반기에도 기대 이상의 수출 실적 가능성 높을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IB들의 이 같은 전망은 한국은행의 시각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일 통화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정보기술(IT)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은 확실하게 저의 예상보다 올라가고 있는데, 내수가 어떨지는 좀 더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경제전망을 통해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된 반면,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하다"며 지난해 11월과 같은 2.1%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엔·달러 환율 155엔대 육박... 34년 만에 최저

일재무상 "긴장감 갖고 보고 있어"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5엔대에 육박하며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54.85엔까지 올랐다.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4엔대 후반대로 떨어지는 것은 1990년 6월 이후 약 34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지난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관계자가 금리 인하와 관련해 신중한 발언을 잇달아서 하면서 미일 금리차로 인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거세졌다"고 분석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6일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이 이르기까지 기존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면 기준금리를 당분간 인하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1월 2일만 해도 140엔대였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이달 들어서는 달러당 154엔대에 진입했다가 지난 19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한때 달러당 153엔대로 내려갔다. 이후 중동 정세에 대한 경제감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다시 엔화를 매도하고 달러화를 매수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경제감에 달러당 155엔을 앞두고 엔화 약세가 조금씩 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즈키 슈이치 재무상은 이날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높은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며 "각국 관계 당국과 긴밀히 의사소통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먼저 추이에 경제감을 표시했다. 앞서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23.02 (-6.42)
↓ 코스닥	845.44 (-0.38)
↓ 금리(국고채 3년)	3.489 (-0.023)
↓ 환율(USD)	1378.30 (-0.90)